

전남 홍수 발생시 주민 13만6000명 위험 노출

전남연구원 분석결과…100년 빈도 홍수 발생 잠재적 피해 예측
순천·여수·나주 순…홍수 지도·재난관리 플랫폼 개발 관리해야

전남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면 주민 13만6000명이 재해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홍수 위험지역 거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전남연구원이 발간한 '전남의 홍수 위험 특성 분석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유인상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 침수흔적도 등 데이터를 활용해 100년 빈도 홍수 발생 시 잠재적으로 홍수 피해가 예측되는 지역 주민을 추정한 것이다. 분석결과 100년 빈도 홍수 발생 시 잠재적으로 홍수 피해가 예측되는 지역 주민은 1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전체 인구의 7.6%에 해당하는 수치로, 순천이 2만 4000명(18%)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2만 2000명(17%), 나주 1만 2000명(9%) 순이었다. 홍수 위험 지역 거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 시·군별 홍수 위험 지역 거주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은 평균 30%로 영광, 강진, 고흥, 보성, 구례, 해남, 목

포 등 9개 지역의 경우 최대 35%로 높았다. 실제 최근 전남지역에는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을 초과하는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나주와 담양에는 각각 200년 빈도(394mm, 333mm)를 초과하는 418mm, 381mm의 비가 하루 동안 내렸다. 함평에도 100년 빈도(338mm)를 넘어선 384mm 극한호우가 내리면서 주거지와 상가, 농작물, 가축 피해가 속출했다. 5년 전인 2020년 구례와 담양지역의 호우도 200년 빈도를 초과하면서 큰 피해를 낳았다. 전남에서는 최근 10년 간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419차례 호우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잦은 호우 특보만큼 피해액도 많았다. 최근 10년간 전남지역 자연피해의 70% 이상은 호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연피해 4218억원 중 77%(3284억원)가 호우 때문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2019-2023년)의 호우피해가 최근 10년 자연피해액의 9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담양군(505억원)으로 뒤

이어 구례군(418억원), 곡성군(295억원), 장성군(248억원), 해남군(156억 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영산강, 섬진강, 황룡강 분류, 해안과 가까워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유 부연구위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호우와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남 고유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홍수 리스크 평가 및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남이 보유한 정책 기반의 홍수 관련 상세 자료와 중앙정부의 과학 기반 홍수 수치모델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홍수 리스크 지도'를 작성하고 활용하자는 것이다.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문서 중심의 자료를 전산화하고, 법적 계획 산출물과 홍수 리스크 지도를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고령자,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재난 취약계층 대상 '재난 취약계층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동 가능 여부와 대피소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피 지원 전담 요원을 지정하고 세대별 맞춤형 대피계획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 부연구위원은 "상습 침수 지역의 지하·반지하·노후 건축물 대상 방수판, 역류방지 밸브, 소형 자동 배수펌프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장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사용 방법 교육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군, 대북 확성기 철거 군이 4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의 철거에 들어갔다. 이날 대북확성기를 철거 작업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김진희 특검 “윤, 최순실 강제구인 때와 똑같이 체포영장 적용”

문홍주 특검보, 체포의지 강조

김진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에 앉히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결코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사가 없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이날 7일까

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을 뜻하는 만큼, 일단 착수했다면 7일 이후에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명태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벌어진 공천개입 의혹에 비중 있게 등장한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

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태군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해외 도피 의혹을 규명하고자 칼을 빼들었다. 특검팀은 이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전 외교부 1차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 차관), 이노공 전 법무 차관 등 당시 정부의 외교부·법무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정은정 복지부장관, 광주 통합돌봄 돌리본다

내일 방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현황 점검 성과 확인

정은정(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광주시 통합돌봄 실태를 둘러보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6일 정 장관은 광주시를 방문해 광주시의 통합돌봄 시스템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둘러본다. 정 장관은 광주다움 통합 돌봄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성과를 확인하고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일단 광주시청을 방문해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모델인 광주 대표 공공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과를 확인 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광주시 북구의 돌봄 서비스 현장을 방문한다. 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4월부터 광주가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로 ‘누구나 돌봄’ 시



스템을 구축했다.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돌봄시민의 가정에 방문해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맞춤형 돌봄계획을 세우는 서비스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세계지망정부연합에서 주최한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혁신 분야 최대 규모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군공항 이전 사전협의

정부 6자 TF 실무회의 앞두고 진행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 당사자인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고위 간부들이 4일 대통령실에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사전협의에서는 각 지자체의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실 직속으로 꾸려질 TF에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현안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광완 광주시행정부시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병중 무안군 부군수 등과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국토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날 사전협의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 6자 TF 실무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각 지자체의 입장과 쟁점을 확

인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요청한 이번 사전협의 자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 무안군의 경우 광주군공항 이전을 두고 공모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광주시와 입장차를 보여왔다. 이날 사전협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각 지자체의 입장을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TF에서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사전협의에서 이번주 이내 6자 TF 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조만간 이들을 다시 한번 불러 한 차례 협의를 더 진행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 차원의 6자 TF를 구성해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타지역 의료기관 시술 난임부부에 교통비 지원

전남도는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시술받는 난임 부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과 광주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한 뒤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추가 시술을 받으면 그때마다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위한 진료, 검

사, 시술을 받은 경우 전북·경남은 10만원, 그 외 지역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7월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난임 환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5. 6. 19. 자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5. 9. 2.까지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8월 5일

유한회사 성창상사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42, 303호 (남동, 초원오피스텔)

청산인 이 해 례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공고

• 피상속인 : 양 윤호(470808-1XXXXXX)
• 최후주속 : 양주 사구 독립로204번길 20-6(광동)
피상속인 양 윤호의 상속인은 위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결을 광주시법원인 2025. 8. 16.로 신청하여 2025년 6월 3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 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일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8월 5일

• 상속인 : 1.김승인(491010-2XXXXXX)
광주 북구 지봉로69번길 43, 102동 1402호 (용봉동, 용봉동금호아파트)
2.윤승범(790329-1XXXXXX)
전주시 사들로 61, 104동 1004호(충무공동, 전주혁신도시대방노블랜드캐슬아파트)
3.윤미경(771009-2XXXXXX)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5, 233동 1601호 (잠실동, 라센트)

• 신고기간 : 2025. 8. 5 ~ 2025. 10. 15.
• 재판청고소 : 상속인 2. 윤승범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개나리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5 - 59호

개나리아파트 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건축심의 결과가 통지되어 개나리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14조 「조형정관」 제42조 및 제43조에 의거 건축심의통지결과 및 분양신청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오니 구역 내 토지동소유자 및 토지동소유자의 권리자는 아래와 같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에게 발송한 분양안내 책자를 미 수령한자는 본 공고를 통지함으로써 갈음합니다.

1. 건축심의 내용
①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93번길 36. 3층 / 조합장 이재인
② 사업시행기간 : 건축심의 결과 통지일로부터 60개월
③ 건축심의 결과 통지일 : 2025년 05월 09일
④ 건축계획 : 공동주택 세대(지상20층~지하2층,2개동),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⑤ 건축면적 및 건축연면적 : 3,241.51㎡ / 27,769.92㎡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①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개나리아파트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②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311번지 일원 외 필지 (7,510.00㎡)

3. 분양신청서 : 토지동소유자 개별 등기 발송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① 기간 : 2025년 8월 11일(월) ~ 2025년 9월 20일(월) (41일간)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포함)
② 분양신청 장소 : 조합사무실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93번길 36. 3층

5.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내역
① 구역면적 : 7,510.00㎡
② 건축물의 주용도 :전매용·용적률 :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전매율(43.16%), 용적률(219.98%),
③ 건축물의 건축년 : 분양신청 안내책자 참조
④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해당없음
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 분양신청 안내책자 참조
⑥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구분	세대수	분양면적 / ㎡			기타공용 / ㎡			계약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시설	지하주차장		
전용59	20	59.99	19.15	79.14	6.75	3.93	40.71	130.53	분양
전용94A	57	84.99	25.01	110.00	9.57	5.56	57.67	182.53	분양
전용94B	77	84.99	25.46	110.45	9.57	5.56	57.67	183.25	분양
근세	1	315.56	41.63	357.19		272.77		629.96	분양

6. 개략적인부담금내역 : 분양신청 안내책자 참조

7. 분양신청 자격
개나리아파트 일원가로 주택정비사업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관련법률 및 조합정관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설립동의서 제출한 조합원, 비동의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분양신청가능

8. 분양신청 방법 (1) 분양신청방법 : 분양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상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단, 우편물 등으로 접수 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하여야함)
(2) 첨부 서류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지체불법기존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9. 토지동소유자와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 상기 분양신청기간 내에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36조 등에 의거 매도청구 및 현금청산

11. 분양신청안내(분양신청서, 분양명령별 매정금순금) : 토지동소유자 개별 등기 발송한 [분양신청안내책자] 참조

1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철거 및 이주기간이 결정되며, 이주시기가 확정되면 서면 통보예정

13. 그 밖에 사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분양안내책자 참조

2025년 8월 5일

개나리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재인(직인생략)

중 앙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 용